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김 학 신**

## 【목 차】

I. 서론 .....	1
II. 마약류 범죄에 관한 개념과 유형 .....	5
1. 마약류 및 마약류 범죄의 개념 .....	5
2.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	7
가. 천연마약 .....	8
나. 합성마약 .....	13
다. 향정신성의약품 .....	14
라. 신종 마약류 .....	20
III.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	22
1. 마약류 범죄의 실태 .....	22
가. 국내 마약류 사범의 동향 실태 .....	23
나. 청소년 마약류 남용의 원인 .....	27
1) 생물학적인 원인 .....	27
2) 심리적인 원인 .....	28
3) 사회적인 원인 .....	29
다. 청소년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	30

라.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실태 .....	31
마. 사이버상의 마약류 밀거래 .....	33
2. 마약류 범죄의 문제점 .....	35
가. 단속적인 측면 .....	35
나. 치료적인 측면 .....	36
다. 교육과 홍보적인 측면 .....	38
<b>IV.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대응방안 .....</b>	<b>40</b>
1. 청소년 대상 공급 차단 정책의 강화 .....	40
2. 마약류의 공조 수사 확대 .....	41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기능 강화 .....	42
4. 국가기관 주도의 청소년 마약류 예방 홍보 .....	44
5. 인터넷상 마약류 의약품 단속 강화 .....	46
6.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 확대 .....	47
<b>V. 결 론 .....</b>	<b>49</b>
<b>【참 고 문 헌】 .....</b>	<b>52</b>

## 【그림 차례】

[그림 1]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동향 .....	24
[그림 2] 마약류 사범의 범죄 원인별 현황 분석 .....	26
[그림 3] 중앙치료보호·재활 지원센터(안) .....	43

## 【표 차례】

[표 1] 최근 6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 .....	25
[표 2] 전체 마약류 사범 행위 유형별 분석 .....	26
[표 3] 청소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	32
[표 4] 청소년 마약·향정·대마 사범 단속 현황 .....	33
<b>【2011 현행 마약류 관리 체계】</b> .....	51

## I. 서론

마약류의 남용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시키고 개인과 가정을 파탄시키는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특히 올바른 인격형성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사회문제이며,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 절도, 살인, 폭력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여 새로운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 문제는 국가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008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sup>1)</sup> 발간, 세계마약보고서(World Drug Report)에 따르면, 한해 최소 1회 이상 마약류를 경험한 남용자 수는 약 1억5,500만-2억5,000만 명으로 이는 15-64세 세계인구의 약 3.5-5.7%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마약류 상습 중독자 수는 1,600만 명-3,800만 명으로 추정된다.<sup>2)</sup>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은 2011년 수능시험을 전후로 하여 청소년층의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는데, 대표적인 마약류 의약품으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sup>3)</sup> 치료제로 사용되는 '공부 잘하는 약',

- 1)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약물 규제와 마약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국제 연합 기관이다. 1991년 《유엔 마약 통제 계획》(UNDCP)과 비엔나에 본부를 둔 《범죄 예방 사법부》가 1997년에 양자가 통합되었다. UNODC는 전 세계적인 불법 마약 유통, 범죄예방 및 범죄사법, 국제 테러와 부패에 보다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유엔을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표는 세 가지 주요 기능에 의해 추구하고 있다. 이것을 채택한 정부에 대한 각종 범죄와 마약, 테러, 부패를 연구조사, 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 <http://www.unodc.org/> (2011. 11. 1 검색)
- 2) 전세계의 마약류 남용자 중 대마 남용자는 1억2,900만-1억9,000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남용자는 1,370만-5,290만 명, 이외에 아편류 남용자는 1,280만-2,180만 명, 코카인 남용자는 1,500-1,9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검찰청, 2010 마약류 범죄백서, 2011. 6. 10, 26면.
- 3)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아동기에 많이

비만치료에 쓰이는 식욕억제제인 '살빼는 약',<sup>4)</sup>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인 '몸짱 약'<sup>5)</sup> 등이 있다. 특히, '공부 잘 하는 약'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오·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약은 주성분이 '염산메칠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sup>6)</sup>이며, 주의력이 결핍되어 지나치게 산만하게 행동하는 증상(ADHD), 우울성신경증, 수면발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 오히려 신경과민, 불면증 등을 유발하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sup>7)</sup> 미국 식품의약품청(FDA)도 이 약물이 '건강한 어린이의 돌연사'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 연관성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는 등 이 치료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sup>8)</sup>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된다. <http://health.naver.com/medical/disease/detail.nhn?> (2011. 11. 24 검색).

- 4)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BMI) 30이상일 때, 반드시 4주 이내로 복용해야 하고 4주간 복용 후에도 효과가 없으면 복용을 중단하고, 3개월 이상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혈압상승, 가슴통증, 불안, 불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과량 복용시에는 의식을 잃거나 혼란, 환각, 불안, 심한 경우 사망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복용기간과 복용량에 대해서도 의사의 복용지시를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조선일보, 수능 앞두고 인기인 '공부 잘하는 약'.. 정체는?, 2011. 11. 5 일자.
- 5) '몸짱 약'으로 통용되는 근육강화제도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오·남용이 우려된다. 근육강화제로 오·남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는 '남성 성선기능저하증'과 '수술이 불가능한 유방암'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이 약은 신경과민증과 내분비계 이상, 황달,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권목소리, 여드름, 색소침착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남성은 대량 복용시 정액감소, 정자감소 등 정소기능억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Newsen, 공부 잘 하는 약, 2011. 11. 1 일자.
- 6) 메칠페니데이트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와 기면증의 치료제로써 승인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리탈린, 콘서타, 페니드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된다. 이는 뇌의 모노아민 수송체에 작용하여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한다. 메칠페니데이트의 구조는 암페타민과 비슷하며 작용 기전은 코카인과 비슷하다. Mary Ann Boyd, Psychiatric nursing: contemporary practice,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5, p.160.
- 7)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식욕감소(154건), 불면증(46건), 체중감소(21건), 두통(20건) 등 총 306건의 부작용이 자발적으로 보고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공부 잘 하는 약', '몸짱 약'은 없어요, 마약류관리과, 2011. 11. 1, 보도자료 참조.
- 8) 식약청은 2009년 국내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에 관한 사용경험에 대하여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등 성기능개선제', '공부 잘하는 약', '살

위와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남용과 더불어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속히 늘고 있다. 해외에서 마약을 비교적 쉽게 손댈 수 있는 유학생들이 마약을 가져오는 사례가 증가한 데다 청소년들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 등에서도 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부산에서는 2011년 7월 노래방 도우미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여고 1학년과 여고 자퇴생 2명이 노래방 손님으로 갔던 사람의 꼬임에 빠져 15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례<sup>9)</sup>도 있다.

2011년 대검찰청 ‘소년 사범(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유형별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까지 전체사건 가운데 소년범죄는 4.4%였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2006년 188명, 2007년 247명, 2008년 439명, 2009년 547명, 2010년 883명으로 꾸준히 증가, 4년 사이 369%의 급증세를 나타냈다. 2011년의 경우, 7월까지 이미 677명이나 적발돼 연말이면 2010년의 수치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증가는 해외 유학을 다녀오는 학생들과 외국인 강사들을 통한 마약 유입 경로가 다양하게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을 접하고 있으며, 대마를 섞은 쿠키, 엑스터시 알약 등이 유행하고 있다.<sup>10)</sup> 특히, 원어민 강사 등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유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약 판매사이트에서 마약류를 구입하고, 이를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 판매사이트는 대부분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sup>11)</sup>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대마 재배법

빠는 약', '근육강화제' 등의 순으로 직간접적으로 가장 오남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위의 보도자료 참조.

9)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 보도자료, 2011. 7. 13 참조.

10) 서울신문, 우리 아이들 연필 대신...마약 손댄다 청소년 마약사범 4년새 4배 급증, 2011. 8. 24, 8면.

11) 경찰청, 제2차 마약수사 국제공조회의(2nd International Working Group Meeting on Drug Smuggling Responses)-제14차 경찰청·관세청 마약수사 공조회의-자료집, 2011. 11. 17-18, 70면.

을 습득하여 일반 가정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sup>12)</sup> 세계 최대 동영상사이트인 ‘유튜브’에 대마초재배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영상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최근 마약류 범죄 백서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 문제는 일반 성인들의 마약류 범죄에 비하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이나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본드나 부탄가스 등의 유해화학물질과 향정신의약품 등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하여, 결국 중독이 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마약류 관련 재범 가능성이 40% 가까이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향에 근거하여 마약류 범죄의 일반적인 실태 현황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마약류 범죄의 문제점 그리고 청소년 마약류 범죄 대응방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적인 측면, 의료기관의 치료적인 측면, 그리고 국가기관, 교육기관 등의 교육 및 홍보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그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2011. 7. 21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대마씨를 구입하여 자취방에서 대마재배장비를 갖추고 대마를 재배하여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재미교포 유학생을 검거하였다. 2011. 4. 19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아파트 실내에서 조명시설, 환풍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화분에 대마를 재배한 원어민 영어강사를 검거하였다.

## II. 마약류 범죄에 관한 개념과 유형

### 1. 마약류 및 마약류 범죄의 개념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마취시키다’, ‘마비시키다’ 라는 뜻과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 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동통(疼痛)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이는 인간에게 의존성과 남용되는 물질로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마약의 일종인 아편은 이미 6천년 전부터 통증과 고통을 없애는 약으로 사용됐다. 또 이질로 인한 설사와 탈수를 줄이는 약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동안 ‘마약’ 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13)</sup> 즉, 마약이라 함은 앵속, 아편 및 그 제재와 이와 유사한 약리작용 및 중독작용이 있는 약물을 말한다. 그리고 ‘마약류’ 는 이러한 마약을 포함하여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을 일컫는 개념으로 마약보다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sup>14)</sup>

이러한 마약류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依存性), 둘

---

13)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 법률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전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으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등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대검찰청, 2010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 2011. 6, 2면.

14) 이경렬·이중화,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특수수사방법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4-18, 2004. 12; 최정호·김학경·이성기, 마약범죄수사론, 경찰대학, 2011, 3면.

째,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耐性)<sup>15)</sup>, 셋째,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禁斷症狀)<sup>16)</sup>, 넷째,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는 인류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공존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장 고귀한 의약품이기도 하였다.<sup>17)18)</sup>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마약류의 소지, 운반, 수출·입, 수수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마약류 범죄라 함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규제나 관리를 위반하는 행위와 금지조항을 위반한 행위를 일컫는다.<sup>19)</sup> 그러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의는 각국의 사회상,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제도적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마의 사용이나 재배, 소량의 소지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도 있다.<sup>20)</sup> 그러나 강력한 처벌을 받는 국가의 경우라도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가 많아 각국의 마약류 범죄의 개념과 정의가 다양하게 논의되기 때문에 마약류 범죄가 무엇인지 가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sup>21)</sup>

15) 내성(耐性)이란 유해 물질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가 점차로 감소하거나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점차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16) 금단증상(禁斷症狀)이란 유해 물질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량을 줄이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예를 들면 손떨림, 땀흘림, 맥박이 빨라짐, 불면, 구역질, 환시, 환청, 불안, 초조, 간질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금단증상은 유해물질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7)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광해군 3년(1611년) 아편의 약효 및 제법 등 마약류 사용이 소개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남용하여 사회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1954-1960년대까지는 헤로인, 코데인, 몰핀, 데바인, 양귀비 등의 마약 남용이 주종을 이루고, 1970년대에는 대마초의 불법 사용, 바르비탈염제류 등으로 마약 대신 습관성 의약품을 전환하여 사용하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메스암페타민('히로뽕'으로 불리는 마약인 필로폰), 2000대 이후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대마, 일명 엑스터시(ecstasy)로 알려진 메틸렌 다이옥시메탐페타민(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DMA) 등 다양한 마약류가 범죄화되고 있다. 全經壽, 癮藥犯罪學(1), 韓國癮藥犯罪學會, 2002, 2면.

18) 정진용, 마약류 밀거래 범죄의 수사체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과 중국간 밀거래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6, 9면 참조.

19)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8판), 형사정책연구원, 2005, 223면.

20) 조성권·윤홍희·배성태, 마약학의 이해,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7, 78면.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제3조에 제1항에 의하면, 마약류 범죄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 제조, 추출, 조제, 제공, 판매, 배달, 중개, 우송,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로부터 발생하거나 범죄에 가담 혹은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재산임을 알면서도 불법출처를 숨기거나 위장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sup>22)</sup> 이와 더불어 취득시 위에 열거된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산임을 알면서도 그 재산을 획득,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재배, 생산 또는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장비, 재료, 원료물질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3)</sup>

## 2.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마약류는 보통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을 하며,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모르핀, 헤로인 등의 천연마약과, 페치딘(Pethidine)계, 메사돈(Methadone)계, 모리피난(Morhinane)계 등의 합성마약, 그리고 코데솔, 코데날, 코데잘, 유코테 등의 한외마약, 코카인(Cocaine), 크랙(Crack) 등의 코카엽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등의 각성제와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와 같은 환각제, 마르비탈염제류 계통의 안정제 등의 체계로 분류된다.

대마는 마리화나 같은 대마초,<sup>24)</sup> 해쉬쉬(hashish),<sup>25)</sup> 해쉬쉬오일 등

21) 조성권·윤홍희·배성태, 위의 책, 61면.

22) 정진용, 앞의 논문, 11면.

23) 서민영,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법정논총, 2007, 74면.

24)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대마는 삼(hemp)이라고도 하며 재배역사가 오래된 식물이다.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 약제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되어 왔다. 대마는

의 대마수지를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마약류의 종류는 너무 광범위하여 모두 다 열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마약류의 종류와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가. 천연마약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마약’이라 함은 ①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②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③ 앞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④ 앞제 것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이 원산지라고 하며 본래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오래 전부터 도취를 초래하는 물질로 남용되었다. 대마의 약효에 대하여는 B.C. 2737년 중국의 신농(神農)황제 시대의 기록에 있고, 말라리아, 각기병, 변비 등의 치료와 섬유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도취감을 얻기 위한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흡연용으로 대마초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이후부터이다.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일반적으로 마리화나(Marijuana, 취하게 만드는 것)라고 불리고 있다. 그 중 나무의 경우 THC(tetrahydro cannabinol)라는 물질 때문에 도취, 환각상태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재배삼의 암그루 꽃 이삭과 잎에서 얻은 것을 간자(ganja), 야생삼에서 얻은 것을 마리화나(marijuana) 또는 브항(bhang)이라고 한다. 약리작용으로는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되고 많은 양을 남용할 때에는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집중력의 상실, 자아상실, 환각, 환청 등이 나타나는데 이 대마의 남용이 위험한 것은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대마보다 약효가 강력한 다른 마약류로 사용을 전이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www.spo.go.kr/spo/major/drug/act/drugtype03.jsp](http://www.spo.go.kr/spo/major/drug/act/drugtype03.jsp)(2011. 11. 1 검색)

25)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시키고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이 해쉬쉬(hashish)인데, 갈색, 연갈색, 암갈색, 흑색 등의 덩어리이며 약 10%의 THC를 함유하고 있어서 대마초보다 8배-10배 가량 작용이 강하다. 1kg의 해쉬쉬를 제조하기 위해 약 30kg의 대마초 처리를 요하며, 해쉬쉬 오일(Hashish Oil)은 대마로 증류공정 등 반복 과정을 거쳐 고도로 농축되어 추출되기 때문에 THC 함량이 약 20%에 이르는 물질이다. 대마수지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능력 감소, 정신분열증과 같은 중독성 정신병을 초래하기도 한다. [www.spo.go.kr/spo/major/drug/act/drugtype03.jsp](http://www.spo.go.kr/spo/major/drug/act/drugtype03.jsp)(2011. 11. 1 검색)

## 1) 양귀비(Papaver Somniferum) · 아편(opium)

오래전 현재의 이라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편에 관한 지식을 들에 새겨서 전한 것이 아편에 관한 인류 최초의 기록이며, 그 뒤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4세기경 양귀비에서 추출한 액체를 질병치료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고 한다. 양귀비는 일명 ‘앵속’ (opium poppy), 아편 꽃이라도 불리는 식물로 양귀비라는 명칭은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그 시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양귀비에 비길 정도로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귀비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온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양귀비 속 1년생 식물(1-1.5m)로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연안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황금의 초승달지대(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 이란의 접경지역) 및 황금의 삼각지대(미얀마 · 라오스 · 태국 접경지역)를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국내의 양귀비는 대부분 농어촌, 산간지역에서 가정 상비약이나 동물 치료약으로 경작 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아편(阿片)은 마취 및 진통제인 의료약품으로도 사용되는 마약의 일종으로, 설익은 양귀비의 열매에서 추출한 우윳빛 추출액을 60℃ 이하의 온도에서 건조시켜 만든 물질이며, 암갈색의 덩어리로 생아편이라고도 한다.<sup>26)</sup>

26) 아편(阿片)은 유럽 각국어인 opium의 한역(漢譯)이며, 어원은 그리스어 opos(식물즙) 및 opion(양귀비의 즙액)으로 보고 있다. 아편은 생아편 · 의약용 아편 · 흡연용 아편으로 나눈다. 생아편은 덜 익은 양귀비 열매에 상처를 내어 유출되는 유액(乳液)을 채집하여 건조시켜서 덩어리로 만든 것이다. 이것을 가루로 하여 모르핀의 함유량을 10%로 조절한 것을 '아편말'이라 하여 의약용 아편으로 쓰고 있다. 아편말은 갈색의 가루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고 맛은 매우 쓰다. 흡연용 아편은 생아편을 물에 녹여 불용분(不溶分)을 제거한 후 증발 농축하여 엑스상(狀)으로 만든 것으로서, 특별한 곱방대를 써서 작은 램프의 불로 발연시켜 흡연한다. 아편은 주로 인도 · 터키 · 유고슬라비아 · 파키스탄에서 재배 · 제조되며, 전 세계의 생산량은 약 100만 kg이나 된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06093> (2011. 11. 23 검색).

민간에서는 아편의 탁월한 진통효과 때문에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아편을 처음 한두 번 흡입하였을 때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감을 경험하는 등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에는 처음과 같은 약효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흡입을 하여야 되고 이는 결국 심각한 중독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아편의 남용이 계속되면 남용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식욕과 성욕을 상실하고 메스꺼움, 구토, 변비, 홍조, 동공수축, 호흡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통상적으로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시간대이다. 이러한 폐단으로 영국과 아편전쟁(1840-1842)을 벌였던 중국(당시 淸國)은 1906년부터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를 전면 금지하였다.

## 2) 모르핀(morphine) · 헤로인(heroin)

모르핀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반응을 거쳐 추출한 강력한 진통성을 지닌 알칼로이드(alkaloid)로서 1804년 독일 약사 프리드리히 제르튀르너(Friedrich Sertürner)가 최초로 아편에서 분리하였으며, 그리스 신화의 꿈의 신 모르페우스에서(Morpheus)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1827년에 머크(Merck)가 처음 상용화하여 판매하였고, 1857년에 피하 주사침이 발명된 뒤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sup>27)</sup>

아편으로부터 추출된 모르핀은 진통, 진정, 진해, 최면효과가 뛰어난 반면, 구토, 발한, 발열, 설사 등과 함께 정신적 · 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사용 중단 시 심한 금단증상을 일으킨다.

모르핀에 중독된 자들은 보통 하루에 3회 정도 이를 투약하는데, 1회

27) <http://ko.wikipedia.org/wiki/%EB%A8%B4%ED%95%80> (2011. 11. 23 검색).

투약량은 10-20mg 정도로 사람에게 따라서는 하루에 120mg을 투약하기도 하며, 한번에 200mg 이상을 투약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호흡장애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다.

헤로인은 모르핀의 아세틸화합물로 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이라고도 한다. 이는 양귀비의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 과정을 거친 후 모르핀염기에 무수초산, 활성탄, 염산, 에테르 등을 화학 처리하여 만든 천연마약이다.

아세틸화합물인 헤로인은 냄새가 없고 백색, 연갈색, 암갈색의 분말형태로 나타나며 물이나 알코올에 녹고 쓴맛이 있다. 긴장, 분노, 공포를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으로 호흡기능을 강하게 마비시키며, 그 작용은 급격하고 독성이 강하다. 급성중독일 때는 호흡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헤로인은 모르핀을 원료로 한 만큼 일반적인 약리작용은 모르핀과 유사하나, 그 중독성은 모르핀의 10배에 달한다. 1898년 독일의 바이엘사가 헤로인을 진통제로 시판하였으나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미국은 1924년 헤로인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sup>28)</sup>

### 3) 코카인(cocaine) · 크랙(Crack)

코카인은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지의 안데스산맥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로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쾌

28) 구미 각국에서는 ‘H’ 또는 ‘호스’ 라는 은어로 밀매자 사이에 통용되고 속어로는 Smack, Scag, Junk로 불리기도 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남용되고 있는 약물중의 하나로 중국내 마약류 사범의 80% 이상이 헤로인과 관련된 사범이다.

감을 일으키는 천연마약이다.

코카인을 씹으면 잎 속의 알카로이드가 사람의 점막에 흡수되어 지각 신경 말단을 자극하는데, 고대 잉카제국에서 제사장들은 종교 의식 중 최면효과를 내기 위해, 서민들은 일상의 배고픔과 피로감을 잊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한다. 1532년경 스페인의 잉카제국 침공 시 유럽에 전해진 코카인은 1800년대 중반에 코카인 성분이 분리되었으며, 1873년에는 의 료용 진통제로서 처음 사용되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는 국소 마취 제로 쓰였지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인 용도 이 외로 코카인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sup>29)</sup>

남미일대에서 재배된 코카 잎은 농부가 직접 잎사귀를 가공하여 코카 페이스트(반죽)를 만들고 이를 정제하여 코카인을 제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글 내 밀 제조시설로 운반되어 그곳에서 은밀히 코카인 추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엄밀한 규제 하에 코카인을 정식 생산하여 국소용 마취제로 사용하고 있다. 남미의 일부 지역 사람들은 직접 코카 잎을 씹거나 코카페이스트를 흡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남 용자들은 수정체 분말을 코로 들이마시거나 주사를 놓아 투약한다.

코카인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자극제(흥 분제)로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 다니는 느낌의 환각이 일어나고, 과다 한 양을 흡입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하여 지며, 열과 함께 경련이 일어나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한편 크랙(Crack)은 코카인과 탄산나트륨 등을 물에 희석하여 불로 가 열한 다음 냉각시켜 추출하는 백색 결정체로서 코카인보다 몇 배나 약효 가 강하고 중독성이 높으며, 유리관에 넣어 가열, 기포화시켜 흡입한다.

29) <http://ko.wikipedia.org/wiki/%EC%BD%94%EC%B9%B4%EC%9D%B8> (2011. 11. 23 검색)

#### 4) 코데인(codeine)

코데인(codeine)은 메틸 모르핀(Methyl Morphine)이라고도 불리는 알칼로이드(alkaloid)의 일종으로서 의학적으로 진통작용은 모르핀의 1/6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완화시키며 통증을 억제하는 진해 및 진정작용은 탁월하며, 비교적 신체적 의존성은 적은 편이나 남용할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한다.

코데인은 모르핀이나 헤로인의 중독증을 치료하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형상은 무취의 백색 결정이나 결정성 분말, 정제, 캡슐 또는 감기약과 같은 용액의 액상을 하고 있다.

최근 코데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복방감초편이 우리나라에서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합성마약

합성마약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진통·진정제로서 의료에 사용되는 동안 점차 탐닉작용이 생기며, 남용하면 유해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합성마약의 생산 및 연구는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지에서 활발하다.

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효과를 가지면서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 개발하는 과정에서 합성된 마약으로 모르핀과 같은 정도의 의존성과 부작용을 지니고 있고, 그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페치딘(pethidine)계, 메사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 5종으로 분류되며 그 중 페치딘계와 메사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다.

특히, 페치딘은 메페리딘(Meperidine)이라고도 하며 화학적으로 모르

핀과 다르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은 모르핀과 유사하다. 페치딘은 진통, 진정작용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통상 페하돌(Pehadol), 데메롤(Demerol)의 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특히 입수가 용이한 의료직 종사자들이 많이 남용하고 있다.<sup>30)</sup>

## 다.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한다.<sup>31)</sup>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약리작용에 따라 환각제 및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 억제제(진정제)로 구분하고 있다.

### 1) 메스암페타민(필로폰, Philophone) · MDMA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일명 '히로뽕'으로 불리며, 중추

30) 朴建鎬, 麻藥類 犯罪에 대한 實態와 그 對應方案에 관한 研究, 光云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2002, 8면.

3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체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로 냄새가 없는 무색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 액체 형태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흥분제(각성제)이다.<sup>32)</sup>

메스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 의학부 교수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약재인 마황(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연구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이후 1893년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로 사용, 1941년 일본 제약회사중 하나인 대일본제약(大日本製藥) 주식회사가 메스암페타민을 상품명 히로뽕(Philophone)이라는 상품명으로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주는 각성약물로서 판매하였다.<sup>33)</sup>

필로폰은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 는 의미의 희랍어 ‘Philoponos’ 에서 유래하였으며, 일본어로는 히로(疲勞: ひろう), 한방에 ‘뽕’ 하고 날린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단순 각성약물로 판매되던 ‘메스암페타민’ 이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는 군수용품으로 대량 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 및 생산능력 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처음 시판 당시에는 졸음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주는 단순 각성제로 인식되었고, 전쟁중에는 군수용품으로 대량생산하였으나, 일본 전쟁 패망 후, 널리 남용되어 중독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sup>34)</sup>

MDMA(Methylene dioxy Methamphetamine) 즉, 메틸렌디옥시 메탐페타민은 엑스터시로 알려져 있으며, 1912년 독일 의약품회사에서 식욕억제

32) 한국에서는 ‘히로뽕’, ‘필로폰’, ‘백색의 유혹’, ‘백색가루’,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총’ 으로 불리고 있고, 미국의 경우 ‘Ice’, 가루 및 액체형태는 ‘Speed’ 로 각호칭되며, 일본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에서는 ‘샤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 호칭되고 있다. 대검찰청, 2010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 2011. 6, 14면.

33) 대검찰청, 위의 책, 15면; 최정호·김학경·이성기, 마약범죄수사론, 경찰대학, 2011, 5면.

34) 1951년 일본정부가 각성제단속법을 제정하고 ‘히로뽕’ 즉 각성제의 수입, 제조, 양도, 양수, 소지, 사용을 금지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였으며, 1972년도 향정물질로 지정하였다. 최정호·김학경·이성기, 위의 책, 5-6면.

제로 특허를 받은 물질로 197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면서 쓰임새가 늘어났다.<sup>35)</sup>

MDMA는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시중유통이 금지되었음에도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전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고 있다. MDMA의 별칭으로는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MDMA를 복용하면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관계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기분이 좋아지는 약(feel good drug), 포옹 마약(hug drug)으로도 지칭되고 있다.

약리적 작용으로 복용 후 20~60분 정도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적인 흥분감을 경험하며, 약효는 3~4시간을 지속하고, 과다 복용 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sup>36)</sup>

## 2) 야바(YABA) ·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세계 최대 마약밀매조직인 '쿤사'가 개발한 야바는 「말처럼 힘이 솟는다」, 「미친 듯이 힘이 솟는다」는 이른바 「야마」(藥馬)를 복용하기 쉽게 정제나 캡슐 형태로 개량한 신종 마약으로 'Horse Medicine'으로 통용되고 있다. 「야바」는 대만에서 개발된 「야마」와 같이 히로뽕에 카페인, 헤로인과 진해거담제 주재료인 코데인 등 각종 환각성분이 혼합된 것이나 다른 점은 주사기로 투약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당분을 첨가해 정제나 캡슐로 만들어 복용할 수 있다. 각종 환각성분의 복합작용으로 히로뽕 등 기존 마약을 단독 투약했을 때 보다 훨씬 강력한 환각효과가

35) 안경애, 마약에 숨은 과학, 디지털타임스, 2011. 11. 17 일자.

36) <http://www.spo.go.kr/spo/major/drug/act/drugtype02.jsp>(2011. 12. 5 검색).

발생, 한번 복용하면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수 있고 공격적 성향, 피해 망상증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야기시키며 중독성도 훨씬 더 강하다. 야바는 마약 삼각지대인 동남아의 골든트라이 앵글중 세계 최대 마약밀매조직인 쿤사지배 지역에서 분말형태로 생산된 뒤 태국에서 정제나 캡슐형태로 재가공 돼 동남아와 일본, 호주 등 청소년층과 격무에 시달리는 회사원들을 중심으로 남용되어 세계 각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야바는 다른 마약보다 생산단가가 싸고 제조공정도 짧아 대량생산이 가능해 쿤사가 야바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 투약방법도 주사기를 이용하는 히로뽕이나 흡입하는 헤로인, 피우는 대마초와는 달리 음료수와 함께 간단히 복용할 수 있다.<sup>37)</sup>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맥각균에서 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로 1938년 스위스 화학자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mann)에 의하여 최초로 합성된 무미, 무취, 무색의 환각제이다. 이 물질은 강력한 정신적 이상을 일으키고 시각과 촉각 및 청각 등 감각을 왜곡시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특히 액체 상태로는 체중의 7억 분의 1의 양으로도 효과를 나타낸다. 정제나 캡슐·액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되며, 주로 각설탕이나 껌·과자·압지·우표의 뒷면 등에 묻혀서 사용되고 주사로도 사용된다. 환각은 사용한 뒤 30분 후부터 나타나며 10시간까지 지속된다. 환각상태에 빠지면 즐거운 상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으나 대개는 몸이 조각나는 공포감, 두려움, 불안 등을 느끼게 된다. 남용하면 뇌와 염색체에 손상을 일으키며 눈동자가 풀리고 창백해지며 심박동과 혈압이 빨라지고 수전증이나 오한 등을 일으킨다.<sup>38)</sup> LSD는 극소량인 25mg만 투약해도 4-12시간 동안 환각증상을 보이며, 염색체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이다.

3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181>(2011. 12. 5 검색)

38) <http://100.naver.com/100.nhn?docid=777590>(2011. 12. 5 검색).

### 3) GHB(Gamma-Hydroxybutyrate)

GHB(Gamma-Hydroxybutyrate)는 무색, 무취로 음료에 타서 복용하여, 물같은 히로뽕, 일명 '물뽕'으로 지칭되며, 특히, 여성의 강간을 위한 성범죄용 도구(강간약물, Date Rape Drug)로 이용되고 있다. 과다복용 시에는 뇌사,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화학약품이다.

GHB는 FDA가 공식적으로 이 제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시판을 금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식품 취급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었다. GHB는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 타서 마시게 되면 10-15분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4시간 지속된다. 약물효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취한 듯 하면서도 몸이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단순음료가 아닌 알코올류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견잡을 수 없이 급속히 나타나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여성 성범죄용으로도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 (Date rape Drug)'로 불리기도 한다. 또 이 약물은 24시간 내에 인체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 미국 의료행정당국에 따르면, 1990년 이후 GHB와 관련해 32명이 사망했으며, 3천500건의 과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sup>39)</sup>

최근 GHB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쿠파 서비스, 국제우편을 통한 밀거래 유통이 성행하고, GHB와 더불어 이와 비슷한 성분의 불법 최음제가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주로 클

39) 1999년 11월 19일 미국 상원은 GHB의 소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가장 엄격한 연방통제를 받는' 약물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GHB를 소지할 경우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HB는 2001년 3월 개최된 제44차 유엔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규정된 물질로 우리 나라는 2001년 12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포함시키면서 마약류로 규정되었다. <http://www.spo.go.kr/spo/major/drug/act/drugtype02.jsp>(2011. 11. 5 검색)

럽과 술자리에서 악용되는 등 많은 여성들이 GHB의 악용으로 인한 제2차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그 위험성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 4) 기타 (러미나, 날부핀, 펜플루라민, 케타민 등)

러미나(Romilar, Dextromethorphan)은 감기약(진해거담제)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쉽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기에 남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청소년들은 보통 ‘정글쥬스’라고 지칭하는데, 약한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있다. 도취감 또는 환각작용을 맛보기 위해 사용량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50-100정을 흔히 남용하는데, 이처럼 과량으로 복용시에는 횡설수설, 정신장애, 호흡억제, 혼수, 사망 등에 이를 수 있다. 2003. 10. 1 부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sup>40)</sup>

날부핀(nalbuphine)은 응급환자용 강력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환각성으로 인해 한때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 약물로 남용되었고, 일명 ‘누바인’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피하 주사시 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에 이르는 진통효과를 보이며 약효 지속시간은 3-6시간이며, 날부핀 3mg은 필로폰 6mg에 해당하는 강력한 환각효과가 있으며,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우울증, 두통, 환각공상 등 정신 불안 증세와 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청색증, 언어장애, 빈뇨 등 부작용이 있다.<sup>41)</sup> 2001년 1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불법 판매에 개입하거나 투약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펜플루라민(Fenfluramine)은 1973년에 단기 비만치료제로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특히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통되고 있

40) 최정호·김학경·이성기, 앞의 책, 11-12면.

4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844>(2011. 11. 28 검색).

다. 중국, 태국 등지에서 중국교포 보따리 장수, 관광객, 중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반입 되고 있는 약물로 중국산의 경우 ‘분불납명편·분미립편·섬수·상주청·철심감미교환·패씨감비환·건미소감비요환’ 등의 제품명으로 과다 복용 시 심한 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질환 등의 부작용이 있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이 살빼는 약 ‘염산펜플루라민(鹽酸芬弗拉明)’이 심장판막 손상 등 부작용으로 인해 2009년 1월에 판매를 중지시켰다.<sup>42)</sup>

케타민(Ketamine)은 인체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지만,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및 금단증상이 있으며, 특히 동물용의약품으로 유통될 때 유통질서가 문란해져서 그 남용가능성이 높은 약물이다. 유흥업소 등에서 ‘강간약물’로 불리며, 주사, 흡연, 흡입할 경우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듯한 강력한 환각효과가 나타나고, 남용에 따라 1-6시간 정도 환각효과가 지속되며,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동반할 수 있는 약물이다.

## 라. 신종 마약류

앞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최근 들어 신종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환각효과가 강력해서 ‘더블K’로 불리는 졸레틸,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등으로 위장, 판매되고 있는 신종 환각성분체인 MDPV(Methylene-dioxy-pyrovalerone),<sup>43)</sup> 3-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환시, 환청이 강력하게 지속되는 환각제 5-메오-딕트(5-Meo-Dipt),<sup>44)</sup>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잎으

42) 연합뉴스, 中, 살빼는 약 ‘염산펜플루라민’ 판매중지, 2009. 1. 9 일자.

43) 문애경, 신종환분제 MDPV 임시마약류 지정, 매일경제, 2011. 10. 18 일자.

44) 1981년 미국의 화학자 ‘Shulgin’ 과 ‘Carter’ 에 의해 처음으로 합성에 성공하였으며 사람에게 있어 3-6시간 지속적으로 환청과 환시를 동반한다고 기술하였다. 이후 여러 사례 연구에서

로 각성 작용이 있는 크라툼(Kratom),<sup>45)</sup> 그리고 ‘합성대마’ 라고 불리는 신종마약인 ‘JWH-018’ ,<sup>46)</sup> 미국내 10대에게 인기 있는 치즈(Cheese)마약, 캔디마약, 뽀빠르스(Poppers),<sup>47)</sup> bk-MBDB<sup>48)</sup> 등 너무 많은 신종마약류가 나타나고 있다.

5-MeO-DiPT의 환청, 환시 작용이 확인 되었으며 환족, 흥분, 발작상태, 무의식, 구토 등을 유도 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미주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유통되기 시작하였으며 의약 및 산업적 용도로는 미사용, 주로 미국, 유럽의 클럽, 나이트 등에서 ‘폭시’ (FOXY, 성적매력이 있음) 또는 국내에서는 일본식으로 ‘( 5를 ‘고’ 로 발음) ‘고메오’ 라는 이름으로 파티 약물로 크게 남용되고 있는 경구용 합성 트립타민으로 사람의 인지기능을 변화시키고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일본이나 영국에 있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뒤 국제 특송 등을 이용, 국내로 밀반입해 사용하며, 동성애자 카페 등에서 최음제 용도로 소량씩 밀거래되고 있다. 2008년 캡슐에 넣어 2개당 5만~6만원을 받고 택배 및 직접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유통사범을 처음으로 적발하였다. 국외에서는 2005년 1월 일본 이바라키 현에서 남성 1명이 ‘고메오’ 과다복용으로 사망하였으며, 미국에서는 1999년부터 시중에서 유통되기 시작하여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밀거래되고 있으며 주요 남용대상은 청소년층이다. 김승희, 신종마약류 정보(III): 5-MeO-DiPT,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09. 10, 5-11면.

45) 태국에서 자생하는 크라툼엽(Mitragyna speciosa)은 ‘크라툼’ 일명 ‘짜이키’ 로, 말레이시아에서는 ‘Biak-Biak’ 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잎이 원주민 사이에서 약물중독치료를 위한 아편 대용 및 코카와 유사한 작용으로 일상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활력제, 설사치료 등에 사용되었다. 국내에서는 2009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 검거동향에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등으로 케타민, 벤질피페라진 등과 함께 밀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는 Mitragynine이 메사돈 중독 해독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사용되었고, 마취제 및 환각물질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장기간 Kratom 식물 사용에 따른 환각, 정신분열증이나 공격성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5-MeO-DiPT, 2C-I와 함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006년 12월 6일 지정되었다. 김승희, 신종마약류 정보(IV): Kratom(크라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09. 10, 5-11면.

46) JWH-018’ 는 대마의 주성분인 THC와 구조가 유사하거나 또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물질이다. 일명 ‘스핑크’ 또는 ‘스페이스’ 로 불리며, 2008. 7.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신종마약이다. 2010년 28건, 557g이 적발되었다. 이는 2009년(1건, 30g) 대비하여 2,7%, 중량은 1,757%가 급증한 수치이다. 기수정,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밀반입 급증, 아주경제, 2011. 2. 20 일자.

47) 이는 혈관확장제로 사용되는 약물로서 브라질 등 남미에서는 뽀빠르스라는 약품명으로 동성애자들이 주로 남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찰에 의하면, 이 약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 동성연애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검거하였으며, 동성연애자들은 동성애 및 환각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며, 국내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8) bk-MBDB는 2005년 화학업계에서 합성되기 이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본의 젊은 층에서 methydone의 대체약으로 암용되기 시작하여 일본에서 2007년부터 마약류관리법(Japanese Narcotic and Psychotropic Drug Control Law)과 일본 약사법(Japanese Pharmaceutical Affairs Law)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김승희, SIDA(마약류과학정보지) Vol.8, 2010. 12, 16면.

### Ⅲ.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 1. 마약류 범죄의 실태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교류 증가, 마약 밀반입 국가의 다변화, 신종 마약류의 확산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산 마약류가 인터넷이나 국제 화물 특송, 해외여행객을 통해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의 오용 및 남용 계층도 종전의 일부 특정계층에서 일반 서민, 청소년 등으로 확산되는 등 우리나라 마약 범죄의 유형이 선진국 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합성대마 JWH-018’<sup>49)</sup>, ‘5-메오딤트’, ‘졸레틸’, ‘MDPV’, ‘배스솔트(bath salt)’ 등 너무나 다양한 신종 마약류들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배스 솔트(bath salt)’로 불리는 신종 마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 배스솔트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0년 한해 동안 배스솔트와 관련해 접수한 전화는 303건이었지만, 2011년 상반기에만 3,470건에 달한다고 미국 독극물통제센터협회는 밝히고 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배스솔트를 금지한 주는 28개주 뿐으로 나머지 일부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마약류 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sup>50)</sup>

49)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JWH-018을 흡연하고, 필로폰 판매와 투약을 한 마약 사범 32명을 검거하여 신종마약인 합성 대마(JWH-018)를 흡입한 마약 사범들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 김경복, 신종마약 JWH-018 국내서 처음 적발, Newsis, 2011. 12. 13일자.

50) 인디애나주에서는 배스 솔트를 흡입한 남자가 길가에 있는 것대로 올라간 뒤 차가 다니는 도로로 뛰어내렸고,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한 남자가 수도원에 침입해 사체를 칼로 찔렀다. 버

2009년 UN국제마약통제단 보고서 및 미(美) 국무부 국제마약통제전략 보고서에서 의하면, 우리나라를 마약류 원료물질 주요 수출국으로 지적하고, 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집 및 우회 경로국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제사회에서 관리 취약국가로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sup>51)</sup>

청소년의 경우 외모 중시, 성적 지상주의 등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비만치료제의 수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6년 UN 마약통제위원회에 의하면, 한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량 세계 3위’ 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 호기심 등으로 인해 접하기 쉬운 신나,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의 복용을 경험하고 이것이 결국 더욱 강력한 마약류 복용으로 이어지고 있다.<sup>52)</sup>

2009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연구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2조 4,899억원으로 우리의 GDP 0.26%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마약류 범죄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 가. 국내 마약류 사범의 동향 실태

국내 마약류 사범수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하였다가 2002년도에 실시된 마약류사범 퇴치전략의 성공(10개

---

지니아주에서는 배스 솔트를 흡입한 여성이 자기 피부에 무엇인가가 있다면서 자해한 사건도 있었다. 김명수, 美 신중흥분제 `배스 솔트` 비상, 매일경제, 2077. 7. 18 일자.

51) 보건복지부,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대책,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2011. 9. 2 보도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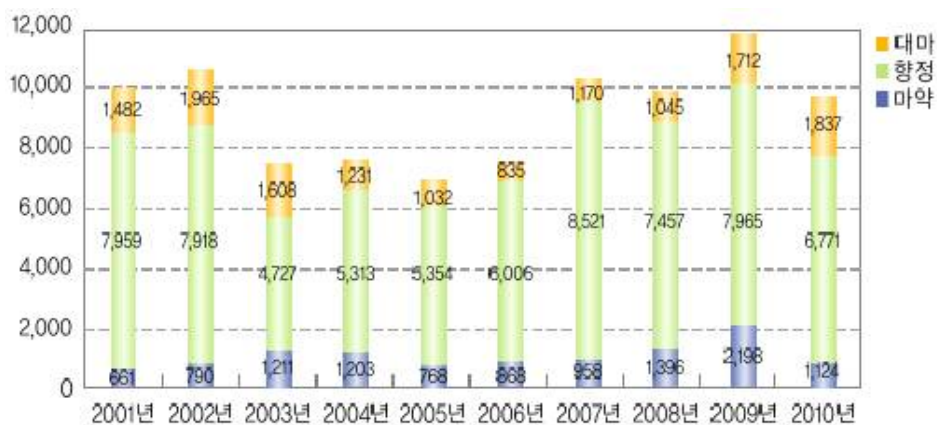
52) 유해화학물질 복용 경험률 : 일반청소년은 2009년 1.6%에서 2010년 2.7%로 증가하였으며, 특수시설인 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에 보호된 위기청소년의 경우 2009년 5.6%에서 2010년에는 7.6%로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대책,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2011. 9. 2 보도자료 참조.

과 224명 단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다시 10,000명 선으로 증가하였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2010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은 9,732명으로 전년도 대비 18.0% 가량 감소하였고, 밀수, 밀매 등 공급사범 또한 2,028명으로 전년도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국내 주종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외국산 밀반입량은 8,642g으로 전년대비 15.5% 감소하였다. 특히, 대마초의 경우는 밀반입량도 276g으로 전년대비 98.7%가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마약류 사범이 감소한 이유는 2010년도에 실시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에 단속된 인원이 66.3%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sup>53)</sup>

특히,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마약사범은 전년대비 48.9%, 향정사범은 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동향 (단위: 명)



\* 출처: 대검찰청, 2010 마약류 범죄백서, 31면.

53) 대검찰청, 2010 마약류범죄백서, 2011. 6. 30, 30면.

[표 1] 최근 6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 (단위: 명)

연도별 구분(인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7
총 계	7,709	10,649	9,898	11,875	9,732	5,309
마약사범	868	958	1,396	2,198	1,124	482
대마사범	835	1,170	1,045	1,712	1,837	760
향정사범	6,606	8,521	7,457	7,965	6,771	4,067

\* 출처: 경찰대학, 마약범죄수사론, 40면.

다음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을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투약 사범이 5,994명으로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밀매가 1,788명으로 18.4%, 밀경이 576명으로 5.9%, 마약류 소지가 458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마사범과 향정사범은 투약 사범이 각 82.1%, 63.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이 48.2%를 차지하고 있는데, 밀경사범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에서 소규모를 양귀비를 재배하던 양귀비 사범이다. 특히 이들은 50대 이상 연령층의 점유율이 91.3%, 농업 및 주부 비율이 59.1%, 여성비율이 59.7%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민간요법 등의 용도로 양귀비를 밀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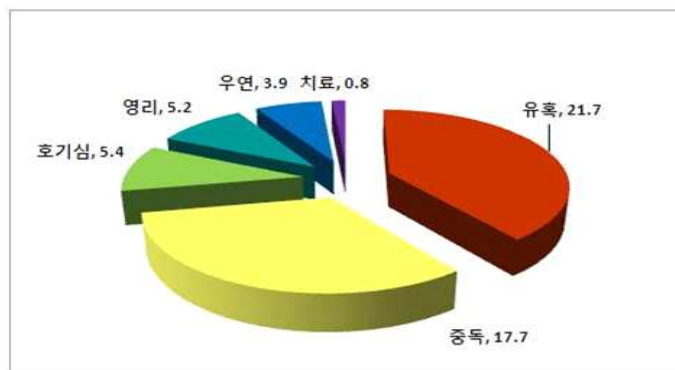
[표 2] 2010년 전체 마약류 사범 행위 유형별 분석 (단위: 명)

유형별 구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마약	0	10	208	542	212	53	99	1,124
향정	4	193	1,488	0	4,273	305	508	6,771
대마	0	33	92	34	1,509	100	69	1,837
합계	4	236	1,788	576	5,994	458	676	9,732
	0%	2.4%	18.4%	5.9%	61.6%	4.7%	6.9%	100%

\* 출처: 경찰대학, 마약범죄수사론, 40면.

마약류 사범의 범죄 원인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혹이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독이 17.7%, 그리고 호기심이 5.4%, 영리 5.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혹, 우연, 호기심이 전체의 3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마약류 사범의 범죄 원인별 현황 분석 (단위: %)



## 나. 청소년 마약류 남용의 원인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남용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을 한가지로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마약류 남용의 원인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문화와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고 마약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단순히 답한다면 마약류는 고통을 완화하거나 쾌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남용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류 남용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sup>54)</sup>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는 생물학적인 원인, 심리적인 원인, 사회적 원인으로 나누어서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 1) 생물학적인 원인

마약중독으로 발전할 개연성은 부분적으로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물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물질이 불균형하거나 어떤 물질이 많다면 감정과 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요소에는 유전적 원인과 신경학적 원인 등이 있다.<sup>55)</sup>

마약 중독이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09년 미시건대학 연구팀이 'Nature Genetics Reviews'지에 밝힌 연구결과

54) 全甫卿, 癮藥類 關聯法에 對한 刑事法的-社會制度的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9. 6, 88면.

55) 조은석·김광준, 마약류 확산 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16면; 박용희,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 4면 참조.

로 알콜 중독과 연관된 유전자가 니코틴, 코카인, 헤로인, 마약성 진통제 및 다른 중독성 물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sup>56)</sup>

## 2) 심리적인 원인

청소년의 마약류의 남용 행위는 한 개인이 충족되지 않은 다양한 감성적인 욕구에 반응하는 행위양식이다. 다시 말해 마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수동적이다. 즉 마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인성결함을 지닌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인성 결함은 문제 있는 가족관계, 건전한 역할 모델의 결핍, 모순적인 부모의 기대, 애정결핍 등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인간은 주위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속에서 일련의 발전단계를 통하여 인성을 조직하고 발전시킨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충동에 의해 압력을 받는다. 이러한 무의식 충동은 성장함에 따라 사회화되며, 각 단계별로 충족되거나 통제되어야 할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불충분하게 충족하였거나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약류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sup>57)</sup>

이러한 심리적인 원인의 대표적인 것이 호기심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본능적이다. 2010년 마약류사범의 범죄원인별 점유율은 유혹이 21.7%, 중독이 17.7%, 호기심이 5.4%, 영리가 5.2% 순으로 유혹과 우연, 호기심이 31.0%를 차지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류 폐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sup>58)</sup>

56) 광도훈, 알콜, 니코틴, 코카인 중독에 모두 연관된 공통적인 유전자가 규명됐다, 메디컬투데이, 2009. 3. 14 일자.

57) 박용희, 앞의 논문, 5면.

58) 대검찰청, 2010 마약류 범죄백서, 188면.

그 다음으로 도피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서적인 긴장, 불안, 우울, 권태, 외로움 등의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려는 성격을 가졌을 때 마약은 하나의 좋은 도피수단이다. 이외에도 심리적인 요소로 대리만족, 자기애적 성격, 종교적 의식을 위해 마약을 남용하기도 한다.<sup>59)</sup>

### 3) 사회적 원인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 행위는 상호 연관된 복합적인 사회적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행위라 한다. 사회적 학습이론에 의하면 마약류 남용의 빈도가 증가하는 조건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또래집단과 성인보다 많이 교제할 때, 마약류 사용에 대해 중립적, 부정적인 정의를 하기보다 긍정적인 정의를 할 때 마약류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의 동기가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소년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관계의 불화, 부모자식간의 갈등, 부모의 이혼 및 무관심 등으로 인한 가정파괴 등 가정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불안과 두려움, 적대감 등으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려고 한다. 결국 청소년들은 외부 환경의 자극에 노출된 상태에서 마약류 남용을 목격하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친구나 동료집단과의 관계에서 상호알력 현상은 같은 세력끼리 세를 규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반대 세력과는 차별을 두고 싶어 한다. 약물에 빠진 동료로부터 마약류 남용의 유혹을 받고 동료집단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마약류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

59) 박용희, 앞의 논문, 6-7면 참조.

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소속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sup>60)</sup>

## 다. 청소년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2007년도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청소년 인식도 조사보고서」는 10대 학교 청소년 2,39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그리고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추진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먼저 청소년들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청소년의 24.9%는 ‘사회구성원들이 충분히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7.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의 10명 중 3명(29.1%)는 개인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견해를 제시한 반면, 약 3.7%는 마약류나 약물 남용이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 및 위험성 인지경로로는 청소년 절반 정도인 55.3%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인지하였고, 4명중 1명(26.9%)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sup>61)</sup>

학교교육이 아닌 방송매체를 통하여 마약류의 폐해 및 위험성을 안다

60) 박용희, 위의 논문, 8면 참조.

61) 박상규,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청소년 인식도 조사보고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8. 1, 5-6면 참조.

는 것은 우리의 교육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기에 접한 마약류는 성인이 되어서도 다시 접촉하여 마약사범이 되는 경향이 대부분이라 한다. 청소년기에 마약류의 위험성 및 폐해에 대한 학교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 라.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실태

청소년들은 보통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고가의 마약은 접촉하기가 어렵다. 2010년 기준으로 메스암페타민 1g당 5대 도시(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평균 도매가격이 18만원, 중간도매가격이 35만원, 소매가격이 82만원이며, 1회 투약분(0.03g)의 가격은 1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sup>62)</sup> 따라서 이러한 고가의 마약보다 러미나, 엑스터시 등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마약류를 주로 남용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정신적 성숙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한 마약류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며,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는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인 마약 중독자의 대다수가 10대 때 마약류 또는 환각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을 접했다고 하는데, 대검찰청의 마약류 사범 중 청소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신분인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은 아래 [표 3]에 보듯이, 2006년 총 마약류 사범 7,709명에서 57명(0.7%), 2007년은 총 10,649명 중 65명(0.6%), 2008년은 총 9,898명 중 43명(0.4%)이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검거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이보다는 많을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은 것은 2009년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09년에는 총 11,875명의 마약류 사범 중 청소년이 203명(1.7%)으로 급증

62) 대검찰청, 2010 마약류 범죄백서, 2011. 6, 125면.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에는 총9,732명에서 113명(1.2%)으로 전년보다는 줄기는 하였지만, 최근 5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들은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연 도 별 직업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7,709	10,649	9,898	11,875	9,732
청소년(대학생 포함)	57	65	43	203	113
(%)	0.7%	0.6%	0.4%	1.7%	1.2%

\* 출처: 대검찰청, 2010 마약류 범죄백서를 재구성한 것임.

이를 구체적으로 마약사범, 향정사범, 대마사범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통계상 거의 단속된 경우는 미비하다 할 수 있다. 2006년 4명, 2007년, 2008년은 없으며, 2009년, 2010년 각 1명씩 검거되었다. 이는 마약가격이 고가이기 때문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공급 사범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향정사범과 대마사범은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검거되었는데, 향정사범의 경우 2006년 33명, 2007년 35명, 2008년 30명, 2009년 149명, 2010년 66명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대마사범의 경우 2006년 20명, 2007년 30명, 2008년 13명, 2009년 53명, 2010년 46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마약 보다는 값이 저렴하고 이러한 마약류를 접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0대에 유학생 신분으로 외국에서 이러한 마약류를 접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마약류 유통 경로를 알고 있기에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청소년의 마약·향정·대마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유형	2006	2007	2008	2009	2010
마약사범 총계	868	958	1,396	2,198	1,124
청소년 마약	4	0	0	4	2
향정사범 총계	6,006	8,521	7,457	7,965	6,754
청소년 향정	33	35	30	149	66
대마사범 총계	835	1,170	1,045	1,712	1,837
청소년 대마	20	30	13	53	46

\* 출처: 대검찰청, 2010 마약류 범죄백서를 재구성한 것임.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73.5%로 여자인 26.5%보다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마. 사이버상의 마약류 밀거래

요즘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PC와 스마트 폰이 일상화·보편화 되어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IT

기술은 우리에게 순기능적인 유익한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악의적 정보인 역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있어서도 사이버 공간을 마약류 밀거래의 이용 수단, 즉, 악의적은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사이버 공간 상에서 마약류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다.<sup>63)</sup>

또한 인터넷에서 대마 재배법을 습득하여 일반 가정집 실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2011년 7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재미교포 대학생이 대마초 재배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영상을 게재하였다.<sup>64)</sup> 그리고 2011년 4월 아파트 실내에서 조명시설, 환풍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화분에 대마를 재배한 영국인 원어민 영어강사를 검거하였다.<sup>65)</sup>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법을 쉽게 배울 수 있어, 앞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마약류 밀거래 차단을 위해서 전국의 경찰 마약수사요원들은 「사이버 밀거래 추적기법」을 교육 받고, 24시간 실시간으로 마약류 밀거래를 추적·감시하고 있다. 보통 수사요원은 인터넷 검색 특히, 마약류 거래 게시물이나 광고물을 통하여 마약류 거래 정보를 수집한다. 더불어 용의자의 E-Mail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 정보를 확보하고, IP 등을 특정하는 등 수사기법을 이용하여 마약류 투약 및 밀거

63) 경찰청, 2011 한국마약범죄 현황 및 대응(DRUG CRIMES IN KOREA), 경찰청 지능과, 2011, 18-19면.

64)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미국에서 들여온 대마 씨앗을 자신들이 묶는 자취방에서 약 300g을 재배,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 마약에 익숙한 교포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1g당 15만원에 팔아 약 4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300g은 1명이 600여회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광래건, 유튜브 보며 대마 직접 재배-판매한 일당 검거, 조선일보, 2011. 7. 21 일자.

65) 영국인 영어강사는 영국과 호주에 체류하면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자국 친구 등으로부터 제작방법을 배워 대마재배 전용 온실을 직접 제작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서정철, 집에서 대마 재배한 영국인 영어 강사 구속, 시사서울, 2011. 4. 22 일자.

래자들을 검거하고 있다.

매년 마약수사대<sup>66)</sup>와 사이버범죄 수사대가 공동으로 「인터넷 마약밀거래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4월 서울지방 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복산한 작대기 팝니다’란 광고를 보고 중국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이를 투약한 마약사범 21명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 2. 마약류 범죄의 문제점

### 가. 단속적인 측면

최근 폭력조직의 마약류 공급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폭력조직의 공급 점유율은 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학생, 외국인 강사 등에 의한 신종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개입하고, 마약류 밀반입 국가의 다변화 추세로 마약류 밀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국에서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프리카 국가로 다변화되어 밀반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우리나라는 마약의 세탁지 내지 경유지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밀반입 국가의 다변화와 더불어 국제우편, 특송화물, 어선, 화물선 등 마약류 밀반입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마약단속국(DEA)<sup>67)</sup>이나 필리핀의 마약청(PDEA) 등은 국가에서

66) 우리 경찰의 마약 수사체계는 16개 지방경찰청 및 17개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구성되고, 현재 (2011년 기준) 총 218명, 본청5, 마약수사대 147면, 전담팀 6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67)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은 미국 법무부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1973년 3월 28일에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서명한, 1973년 재조직 계획 No.2에 의해, 1973년 7월 1일에

마약수사 전문부서를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관기관 간 전문마약수사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국정원 등 각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마약수사를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sup>68)</sup> 등 단일 마약수사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비하여 마약 수사시 공조가 되지 않고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수사체계는 국제적인 마약류 범죄에 대처하기에 곤란하다. 보통 마약 수사는 생산지, 경유지, 소비지에서 각자 수사가 필요하므로 마약범죄는 2개국 이상의 경찰 수사기관이 협력하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그 창구가 단일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마약 공조수사는 어렵게 된다.<sup>69)</sup> 이는 마약류 범죄가 국제화, 광역화,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유통의 경우도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등이 단속을 할 경우, 보통 인터넷 서버를 해외에 두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용하다보니 실제 인터넷상에서의 마약류 거래를 단속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나. 치료적인 측면

최근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성인 마약류 중독자 523명

설립되었다. 또한 1999년 2월에는 버지니아의 알링턴에 DEA박물관이 세워지기도 했다. 마약단속국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소탕을 위한 별도의 전투행동을 포함한 작전을 실행중이다. <http://exploring.learningforlife.org/> (2011.11. 30 검색)

68) 중국의 경우에는 國家禁毒委員會(National Narcotics Control Commission)에서는 전국적인 마약퇴치활동을 지휘하고 국제협력 활동 등을 담당하기 위해 1990년 창설되어 당중앙선전부, 국무원,公安部, 위생부 등 25개 부처로 구성되었다. 국가금독위원회 사무기구의 역할은 1998년부터 公安部 禁毒局 주도로 단속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31개 省市自治區와 대다수 시·현급 정부에 각각 상응하는 禁毒指導機構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정보원, 마약류용어 해설, 142면. (<http://service5.nis.go.kr/dataRoom/publicationsList.jsp> 2011. 12. 12 검색)

69) 정진용, 마약류 밀거래 범죄의 수사체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과 중국의 밀거래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6, 68면 참조.

(93.5%, 여자 6.5%)를 대상으로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마약류중독자들의 주변 환경의 이해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활용하고자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마약류남용자들이 약물 문제 뿐만 아니라, 담배 및 알코올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우울 및 자살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마약류를 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성적 만족 및 즐거움 등 중독성향의 패턴을 보였다.

그 결과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효과적인 공조 필요성 대두되었으며,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팀 접근적인 치료재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국가적 정책 마련 및 재원 지원 시급함을 조사에서 보여주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상당수가 혼자서 단약을 시도하지만 실패하였고, 3/4정도가 치료재활 서비스를 원하고 있어 근본적인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재활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sup>70)</sup>

또 다른 치료적인 문제점으로 현재 4대 권역 12개(301개 병상) 치료보호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의료 인력은 18명에 불과해 치료보호기관 시설의 부족과 증가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있어 전문프로그램 개발 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전문 병동 또한 국립부곡병원 1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치료 감호시설에 입소된 마약류 사범들은 대다수가 재범환자로 약물치료 감호 집행기간이 2년으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이 곤란하다. 특히, 약물치료 재활센터의 적정한 수용인원 72명이지만, 현재 수용인원이 106명으로 약 38.9%를 초과하여 수용하고 있다.

교정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로부터 격리·구금 등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치료·재활기능 강화 등 치료적인 측면으로 처우를 개선 할 필요가

70) 보건복지부,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대책, 2011. 9. 2, 16-17면.

있으며, 더불어 마약류 사범이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재활시설은 입소인원 15명인 송천재활센터 1 곳에 불과하고 입소대상도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71)</sup>

### 다. 교육과 홍보적인 측면

청소년 집단은 장래 국가발전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마약류 남용이나 범죄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남용 예방 교육은 국가 마약류 범죄 예방전략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문제에 대한 학교의 대책은 전통적으로 근신이나 정학, 자퇴권유 등 징계처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결국 마약류 남용 학교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탈락된 청소년들은 마약류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치료를 받기보다는 또 다른 비행이나 범죄로 연계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겪게 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었다.<sup>72)</sup>

이러한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후 치료적인 측면 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현재 우리의 정책적인 우선 순위나 예산의 부족 등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음주나 금연에 대한 예방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예로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71) 보건복지부, 위의 자료, 6면.

72) 강은연·신의가·김한균, 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4, 25-26면.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위기 청소년의 43.6%가 마약류와 관련하여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 본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예방 교육이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sup>73)</sup> 중심으로 한 홍보 및 예방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나 활동수준, 사업효과 등의 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특히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 대중매체 등이 적극적인 협력체계 하에 주도되는 통합적인 마약류 남용 예방 및 교육체계는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sup>74)</sup>

성인이 되어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 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교육이 중요하며, 이러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7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로부터 인류를 지킨다'는 목적 아래 1992년 5월 12일 창립한 민간단체이다. 주요 사업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계몽·교육 프로그램·치료 및 재활 안내·자원봉사 프로그램·조사연구·자료개발·국제교류·대국민홍보 등이다. 홍보자료 개발팀·교육상담팀·총무팀·후원회팀·기획조사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전국에 16개 지부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성정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예방교육·상담자 교육·부모교육·양호교사 전문교육 등을 실시중이다. <http://www.drugfree.or.kr/>

74) 강은연·신의가·김한균, 앞의 논문, 19면.

## IV.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대응방안

### 1. 청소년 대상 공급 차단 정책의 강화

우리나라의 마약류 실태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약류의 유입과 확산 그리고 신종마약류를 비롯한 종류의 다양화 등은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하게 퍼져있다. 이러한 마약류의 심각한 폐해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청소년이 호기심을 갖고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약류의 시작이 청소년기에 본드나 부탄가스, 신나 등의 유해화학물질의 남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 때 부터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본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약류를 접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청의 2010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마약류 사범의 연도별 재범 현황을 보면, 2006년 45%, 2007년 40.6%, 2008년 38.3%, 2009년 33.8%, 2010년 36.8%로 최근 5년간 30%이상의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약류의 재범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어,<sup>75)</sup> 청소년기에 유해화학물질 차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통계상으로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이 올해 수능시험을 전후로 하여 청소년층의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대표적인 마약류 의약품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공부 잘하는 약', 비만치료에 쓰이는 식욕억제제인 '살빼는 약',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인 '몸짱 약'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 정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초기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의약품의 공급을

75) 대검찰청, 2010 마약류 범죄백서, 2011. 6, 207면.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급 차단 뿐만 아니라 현재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도 필요하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일반 청소년보다 더욱 마약류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한 교육 강화와 더불어 정부의 완벽한 차단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2. 마약류의 공조 수사 확대

정보통신의 발달은 마약류 범죄에도 영향을 미쳐 원어민 강사, 국내체류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해외 마약 판매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구입하고, 이를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마약 판매 사이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서는 국내·외 공조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특히, 외국의 마약류 관련 자료, 분석,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마약류 수사, 정책 등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내 국가기관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국정원 등은 마약류 범죄가 국제화·광역화 되어가는 흐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청·관세청 마약수사 공조회의」의 참석범위를 인터폴(Interpol)등 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마약수사 국제공조회의」에서는 경찰청, 관세청, 대검찰청, 국정원, 식약청 등 국내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인터폴·UNODC, 일본 경찰청, 태국(ONCB), 필리핀 경찰(PEDA), 중국(NNCC), 러시아, 미국(DEA)·국토안보부 등 외국의 수사기관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더 실감됨을 보여주었다.<sup>76)</sup>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성공적인 공조수사의 사례로 2010년 2월 마약류 원료물질인 ‘염사 슈도에페드린(감기약)’ 5,207,000정을 전국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구입 하여, 미국 LA로 밀수출한 피의자 14명을 검거하였는데, 여기에는 대전 마약수사대와 미국 마약수사청 DEA, 인천세관 등의 공조수사가 일조를 하였다. 또한 2010년 2월 천에 흡착된 헤로인, 아편, 대마초를 매입·판매·투약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16명을 검거하였는데, 이 또한 국정원과 관세청이 공조수사를 하였으며, 동년 5월 중국과 베트남에서 국제화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마약류 사범 10명의 검거도 경찰과 관세청이 공조수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sup>77)</sup>

또한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폭력조직 수사시에 마약류 밀거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 차단 등 조직폭력 사범의 마약류 거래 개입을 초기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약류 밀반입 다변화에 따른 공항이나 항만 등의 통관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마약류 우범 국가를 경로별로 하여 마약밀수 정보분석팀을 운영하는 등 마약정보 분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며, 장기간으로 나가는 출어선(出漁船)을 통해 밀반입 가능성이 있는 어선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여 마약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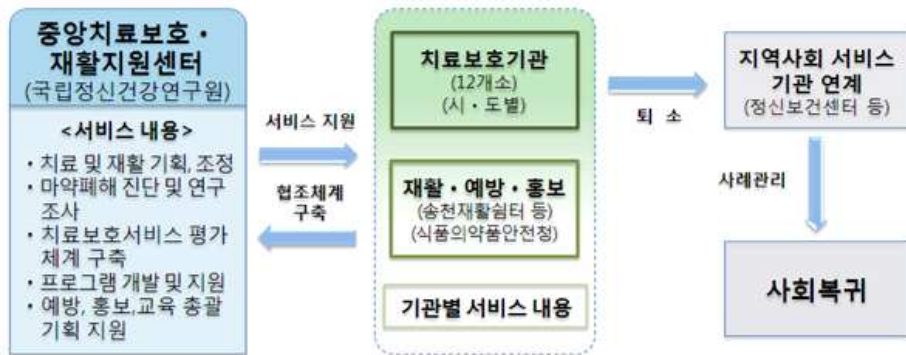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는 현재 4개 권역별 12개의 치료보호기관을 전

76) 경찰청, 제2차 마약수사 국제공조회의(제14차 경찰청·관세청 마약수사 공조회의), 경찰청 수사국, 2011. 11 자료집 참조.

77)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국적으로 시·도별로 확대하여 16개의 치료보호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을 위한 ‘중앙치료보호·재활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센터에서는 시·도별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기획·조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하는 등 연계체계를 구축 지원하며, 마약류 폐해 연구조사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할 계획이다. 78)

[그림 3] 중앙치료보호·재활지원센터 (안)



\* 국립정신건강연구원(현 국립서울병원 기능전환 추진)에 설립 검토

또한 치료감호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마약류 사범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치료의 상한기간을 2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78) 보건복지부,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대책, 2011. 9. 2, 10면.

마지막으로 교정시설의 치료 및 재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교정시설 입소자 중 치료보호기관 등의 입소조건으로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복지부에서는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에서는 환자관리 등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적극적인 사회복귀 적응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가석방에 의한 구금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등의 혜택과 소극적으로 사회복귀 적응 프로그램 참여할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교도소로 재수용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 사회복귀에 따른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sup>79)</sup>

#### 4. 국가기관 주도의 청소년 마약류 예방 홍보

국가기관의 청소년 마약류 예방 홍보는 마약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인과 더불어 청소년에게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용납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1995년까지는 전국적인 거리 캠페인, 포스터 및 스티커 등의 홍보물의 제작 배부 등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홍보활동에 집중하다가 최근에는 지하철, 극장, 라디오, 케이블 방송, TV,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정부 각 부처(보건복지부,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식약청, 교과부)들은 한해 동안 다양한 형태로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홍보에 매진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자의 입원 홍보」 및 「DUR 전국 확대 및 약국판매약 DUR 실시」<sup>80)</sup>, 관세청은 「마약류 대리운반 근절 캠페인」, 경찰청·검

79) 보건복지부, 위의 자료, 10-11면.

80) 의약품 안심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라 함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찰청·해양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홍보」 및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기간 운영」 등의 캠페인을 하였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마약류 오·남용의 폐해를 홍보」 및 「비만치료제의 적정 사용」에 관한 동영상과 책자 등을 배포하는 등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하여 국가기관 각 부처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다.<sup>81)</sup>

이러한 국가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대중매체,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6,461개교에서 전시회를 하는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청소년 마약류의 예방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홍보활동의 한 예로 마약퇴치운동본부는 포스터의 공모 및 전시회, 마약퇴치 국민대회, 마약퇴치 콘서트 등 대규모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독자적으로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개최와 매년 300명정도가 참여하는 마약류퇴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마약류 예방 단속 및 치료재활 부문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1. 6. 17에는 관세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업무협력(MOU)을 체결하여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홍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경찰의 경우 2011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홍보활동을 위하여 전국의 마약수사요원이 중·고등학교 및 소년원 등을 방문하여 마약류 범죄의 폐해 및 심각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마약퇴치 및 예방홍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안전정보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서비스’ 라고도 한다.

81) 보건복지부,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대책, 2011. 9. 2, 보도자료 참조.

보' CD를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up>82)</sup>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있어 고유한 법집행관으로서의 이미지 때문에 지역사회나 학교 마약류 남용예방활동에서 다른 어느 전문가 집단보다 높은 마약류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찰과 학교, 마약류 치료기관, 민간단체간의 적극적인 협력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sup>83)</sup>

또한 정부는 마약류 관련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용 책자, 비디오, CD 등 다양한 예방 홍보자료들을 개발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에 보급해야 할 것이다.<sup>84)</sup>

## 5. 인터넷상 마약류 의약품 단속 강화

최근 복지부와 식약청은 2008년도에 24개였던 마약류 원료 물질 지정을 2011년에는 30개로 확대하였고, 2011년 9월에는 신종 환각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살빼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푸로세미드 등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우려가 높은 20개 성분의 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2010년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822개를 차단하였다.<sup>85)</sup>

인터넷은 청소년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를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다. 앞서 실태에서 보았듯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하여 대

82) 경찰청, 2011 한국마약범죄 현황 및 대응(DRUG CRIMES IN KOREA), 경찰청 지능과, 2011, 27면.

83) 강은연·신의기·김한균, 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4, 39면.

84) 이와 관련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관련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매주 언론에 보도된 마약류 관련 보도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1회 사이버회원 1만 명에게 다양한 마약류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85) 보건복지부,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대책,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2011. 9. 2 보도자료 참조.

마초 재배법을 습득하는 등 이제는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류를 접하고 복용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소비자단체 등과도 협력 및 홍보를 통하여 마약류 관련 불법 사이트의 폐쇄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관계기관은 인터넷에서 청소년이 마약류 관련 의약품 접촉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6.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 확대

마약류 퇴치 홍보활동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예방 교육활동도 중요한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대응방안이라 할 것이다. 특히, 1990년대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분드나 부탄가스, 신나 등 흡입제 남용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선진 외국의 마약류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여 예방 교육을 시작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1995년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한 ‘학교보건관리자료’에 의하면, 각급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는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류 오·남용, 흡연, 음주 및 성교육 등 사회적인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건수업을 하였다. 또한 2002년 마약류대책협의회는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 이후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청소년 마약류 남용에 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교육 체계가 입시 위주교육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마약류 관련 교육방법이나 내용 등의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sup>86)</sup>

따라서 정부는 마약류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각급 학교에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남용 예방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의 경우 12,400개교에서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3,271개 과정의 학교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08년도에 전국 각급 학교에서 5,000회의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전체 학생의 약 5%인 약 41만 명이 교육을 받았다. 물론 현재까지도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교육받는 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는 ‘청소년기에 마약류 예방 교육이 안되면, 마약류 사범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에 위기가 온다’라는 신념을 갖고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 약물남용 예방교육에 통해 명확한 가치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목에 현재 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 문제를 현재보다 감소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86) 강은연·신의가·김한균, 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4, 26면.

## V. 결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보통 입시 위주의 학업 스트레스, 외모 지상주의 등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마약류의 환각을 추구하는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신종 마약류가 우리의 법적인 테두리를 피해가며 국내로 유입되는 것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마약류 범죄가 광범위화·조직화·다양화 추세로 변화하다 보니 경찰, 검찰 등 관련 부처의 수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마약류 남용이 메스암페타민과 대마 등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입과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각종의 신종마약류의 남용이 대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신종마약류들이 다양해지고 있고, 청소년들은 이러한 마약류들을 접촉하고 복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마약류를 통제하는 정부부처 즉,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검찰청, 국가정보원 등은 적극적인 예방과 통제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마약 연방청(DEA)을 비롯한 외국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신속한 마약류 지정, 마약류의 정보교환, 특송 화물, 국제우편 및 소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통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 신종 마약류에 대한 수사기법의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이러한 마약류가 청소년에게 유입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강력하게 통제해

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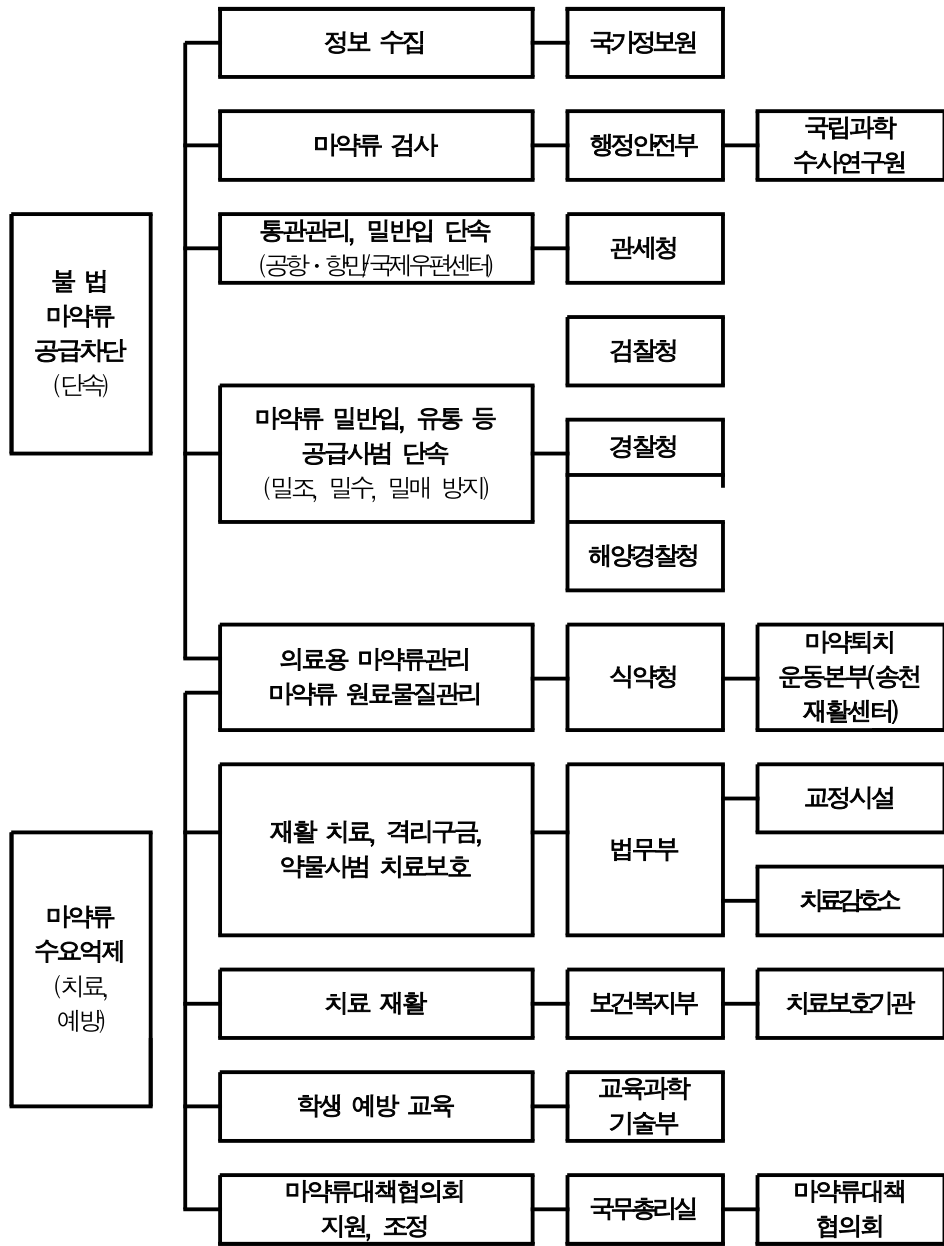
본문에서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급 차단 정책, 예방 교육 및 홍보, 치료, 재활 기능의 강화 등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대응방안이 있지만, 마약류 남용을 통한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적인 대책으로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 과정 등의 우선적인 개선이나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 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의 원료물질 지정을 확대하고 마약으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물질의 제조나 수출 등에 허가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살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 등 이러한 신종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들이 오·남용되고 있다.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들도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나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약물들에 중독이 되면 성인되어서도 마약류 사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국가는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정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의 남용이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마약류와 관련하여 수사, 감식, 분석 등 연구할 분야는 많고, 연구 범위도 광범위하다. 본 책임보고서는 짧은 단편 보고서로서 큰 틀에서 마약류 범죄 전체를 연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다보니 많은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 앞으로 연구에는 마약류 범죄의 전체적인 틀에서 국내외 자료들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연구할 기회가 조속한 시일안에 오리라 본다.

【2011 현행 마약류 관리 체계】



## 【참 고 문 헌】

### I. 국내문헌

- 강은연 · 신의기 · 김한균, 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식약청, 2007. 4.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경찰, 2011. 10.
- 경찰청, 제2차 마약수사 국제공조회의(2nd International Working Group  
Meeting on Drug Smuggling Responses)-제14차 경찰청 · 관세  
청 마약수사 공조회의-자료집, 2011. 11.
- 경찰청, 2011 한국마약범죄 현황 및 대응(DRUG CRIMES IN KOREA), 경  
찰청 지능과, 2011.
- 김승희, 신종마약류 정보(IV): Kratom(크라툼), 식품의약품안전평가  
원, 2009. 10.
- 김승희, SIDA(마약류과학정보지) Vol.8, 2010. 12.
- 대검찰청, 2010 마약류 범죄백서, 2011. 6. 10.
- 朴建鎬, 麻藥類 犯罪에 대한 實態와 그 對應方案에 관한 研究, 光云大  
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2.
- 박상규,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청소년 인식도 조사보고서, 한국마약퇴  
치운동본부, 2008. 1.
- 박상기 · 손동권 · 이순래, 형사정책(8판), 형사정책연구원, 2005.
- 보건복지부, 마약퇴치 · 약물 오남용 줄이기 대책, 보건복지부 의약품  
정책과, 2011. 9. 2 보도자료.
- 박용희,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

- 서민영,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법정논총, 2007.
-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공부 잘하는 약', '몸짱 약' 은 없어요, 마약류관리과, 2011. 11. 1, 보도자료.
- 이경렬 · 이종화,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특수수사방법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4-18, 2004.
- 全經壽, 麻藥犯罪學(1), 韓國麻藥犯罪學會, 2002.
- 全甫卿, 麻藥類 關聯法에 對한 刑事法的·社會制度的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9. 6.
- 조성권 · 윤흥희 · 배성태, 마약학의 이해,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7.
- 조은석 · 김광준, 마약류 확산 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정진용, 마약류 밀거래 범죄의 수사체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과 중국간 밀거래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최정호 · 김학경 · 이성기, 마약범죄수사론, 경찰대학, 2010.

## II. 외국문헌

- Mary Ann Boyd, Psychiatric nursing: contemporary practice,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5.

## III. 언론 및 인터넷 웹 사이트

- 김경복, 신종마약 JWH-018 국내서 처음 적발, Newsis, 2011. 12. 13.
- 김명수, 美, 신종흥분제 `배스 솔트` 비상, 매일경제, 2011. 7. 18.
- 기수정,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밀반입 급증, 아주경제, 2011. 2. 20.

- 곽도훈, 알콜, 니코틴, 코카인 중독에 모두 연관된 공통적인 유전자가 규명됐다, 메디컬투데이, 2009. 3. 14.
- 곽래건, 유튜브 보며 대마 직접 재배-판매한 일당 검거, 조선일보, 2011. 7. 21.
- 안경애, 마약에 숨은 과학, 디지털타임스, 2011. 11. 17.
- 문애경, 신종 흥분제 MDPV 임시마약류 지정, 매일경제, 2011. 10. 18.
- 서정철, 집에서 대마 재배한 영국인 영어 강사, 시사서울, 2011. 4. 22.
- 서울신문, 우리 아이들 연필 대신...마약 손댄다 청소년 마약사범 4년 새 4배 급증, 2011. 8. 24
- 연합뉴스, 中, 살빼는 약 '염산펜플루라민' 판매중지, 2009. 1. 9.
- 조선일보,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정체는?, 2011. 11. 5.
- Newsen, 공부 잘 하는 약, 2011. 11. 1.
- <http://www.unodc.org/> (2011. 11. 1 검색)
- <http://www.drugfree.or.kr/>
- <http://www.spo.go.kr>
- <http://health.naver.com/medical/disease/detail.nhn?>(2011.11.24검색)
- <http://100.naver.com/100.nhn?docid=106093> (2011. 11. 23 검색)
- <http://ko.wikipedia.org/wiki/>(2011. 11. 23 검색)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181>(2011. 12. 5 검색)
- <http://100.naver.com/100.nhn?docid=777590>(2011. 12. 5 검색)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844>(2011. 11. 28 검색)
- <http://exploring.learningforlife.org/> (2011.11. 30 검색)
- <http://service5.nis.go.kr/dataRoom/publicationsList.jsp>(2011.12.12검색)

책임연구보고서 2011-09

##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

2011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 한 광 일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